

지반공학회 초대 논문상 수상 소감

이 인 모 *

지반공학회 고문이신 정인준 교수님께서 우리학회에서도 논문상을 시상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학회에 기증하신 기금을 근거로 올해부터 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논문상 제정의 배경으로서, 본인과 본인의 연구팀이 그 첫호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본인에게는 정작 수상결정된 통보가 전달되지 않아 지난 3월26일 지반공학회 정기총회 당일날 참석하여 수상여부를 알게 되어 한편 당황하고 놀라기도 하고, 한편 1호상을 받은 의미에서 기쁨 또한 감출 수 없었다. 학교를 졸업한지가 이미 오래되어 실로 오랫동안 받아보는 상이라 할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즈음에 학위는 받았지만 도대체 지반공학이라는 학문이 요상해서 필자는 너무나 자신이 없었다. 어느날 갑자기 학생신분에서 비행기 한번 갈아타고 귀국해 보니 교수로 변해버린 본인을 바라보면서, 소경이 소경을 가르칠 수 밖에 없는 필자의 처지를 느끼고, 늘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던 그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며, 아니 지금도 자신이 없는 것은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다. 지반공학이란 학문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random해서 이론이 실제에 맞아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늘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고뇌하는 가운데 판단(judgement)을 내려야 하는 학문으로

서, 어찌보면 로켓트 달나라 가는 정밀공학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워낙 세상과 미래는 chaos라 이러한 chaos를 다루는 가장 첨단 같기도 하고 그 많은 불확실성 속에 '문제도 현장에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어느 분의 말씀처럼 사무실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paper만 접하게 되면 현장과는 동떨어져 garbage가 되기 쉬운 우리 학문이란 그야말로 어려운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생각한다. 이러한 자신없는 불안감과 함께 일류사립대학에서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늘 본 필자를 늘렸고, 그런 가운데 벌써 교직생활 9년째 접어들게 되었으며, 그런 혼돈속에 갑자기 상을 받게 된 것이 본인의 솔직한 소감이다. 다시말하여 자신없는 필자로서 도대체 자격없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 일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뭐 그렇다고나 할까?

어찌했든지 학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준상으로 알고 우리분야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본 필자는 그저 이제껏 그랬듯이 앞으로라도 늘 자신없고 불안한 가운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지반공학에 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소천하기 전에는 그러한 마음을 도저히 떨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아직도 본 필자의 마음일까요?

성경에 보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있다.

*정회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작은데 만족하지 않고 항상 큰 이상을 바라보고, 구약시대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렸을때 꿈으로 보았던 큰 환상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부단없이 노력하였을 때, 그 꿈이 급기야 실현되듯이 우리 지반공학 인도 비록 어렵고 연구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현주소에서라도 입을 크게 열고 꿈만은 아주 크게 가져 우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도록

애써서 그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고대해 보며, 필자도 그러한 목표아래 작은 부분이라도 담당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논문상 수상소감에 대신해 본다.

끝으로 본상의 제정을 위해 큰 기금을 아낌없이 기증하신 우리분야의 원로 정 인준 교수님께 다시한번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리고 싶다.